다함께 성경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다같이 인사할까요, 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7과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가 잘알고 있는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

그 심판의 배경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니까 도저히 용납할수 없을만큼 죄가 가득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죄의 시작이라는 것. 사람들이 , 사람들이 항상 악한 생각, 악한 계획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12절에 보면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하다, 패괴하다 강포하다

또 그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이

것은 도저히 하나님이 기다릴수 없을 만큼 그들이 모습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그 타락의 시작이라는 부분을 보면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6장 1절, 6장 1절부터 2절까지 이것은 우리 다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람이 땅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 죄의 시작, 6장,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배경이 되는 그 6장의 시작부분을 보면 예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들의 아내를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면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그 딸들은 근본적인 어떤 신분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다.

결코 하나될수 없는 차이죠. 구별됨의 차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구별됨이 사라져 버린 것을 의미하죠

구별됨이 사라져 버리는 것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라는 부분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바로 그 구별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죄의 시작은 구별됨의 사라짐이라는 거죠. 구별됨이 사라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임으로써 그들 사이에 구분이 사라져 버릴때, 거기서부터 죄는 시작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섞여버림이 결국에는 똑같아져 버리는거죠. 똑같아져 버리는거

우리들의 죄도 마찬가집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무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무리다 하는 것은 그들과 결코 섞이지 않는, 섞일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거죠 , 섞일수 없는 무언가.

그런데 그렇게 구별된 우리가 세상사람들과 같아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바로 타락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 타락의 시작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것이 아니고, 또는 뚜렷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시작은 굉장히 조그맣고 누구도 분별할수 없는 그 작은 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것,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고 또 뭐 그러네 하고 다 인정할만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때 그 사람들의 성품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건 아니죠 사실 굉장히 평범한거죠

일상 생활 가운데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뭔가가 하나 빠져 있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 그것만 있으면 안되는데, 예수님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살것이 아니요.
그런데 떡으로만 살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떡으로만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당시의 그 사람의 딸들은 결국 떡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였겠죠

먹을것, 육신적인것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겠죠

하지만 그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였다라는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이였어야 되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똑같아져 버린거죠

사람의 딸들하고 똑같아져 버린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겉으로 볼때는 그런건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볼때는 아주 치명적인거죠

왜냐면 우리의 영혼은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람은 결국 타락하고, 그리고 죄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그 죄가 성장을 해서 , 아까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타락한 그속에 그 마음의 생각,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멀어짐의 그 마음이 그뒤에 12절 13절,(정정) 11절 12절에 보면

11.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2.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아주 강포가 넘치고 패괴해지는 아주 흉악해지고 타락하는,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걸보면은 죄의 시작 부분이 무엇이며 그리고 죄는 어디까지 발전할수 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노아의 홍수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태를 한번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별로 구별된 모습이 없다.

제가 지금도 이제 생각하면은 슬픈 사건이 하나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무렵에 우리 선배 하나가 저를 보고 그런말을 한적 있어요

아 저를 보고 한건 아니고, 제 옆에 있는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친구를 보면서 저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서 얘기 하면서 저를 가리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 야, 믿을려면은 좀 쟤처럼 믿어라, 나를 가리키면서, 야 믿을려면은 쟤처럼, 교회를 다닐려면 쟤처럼 교회를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좋았어요, 야 내가 평상시에 굉장히 모범된 생활을 했나보다.

그런데 그 다음의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예요 , 그다음의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야, 쟤는 얼마나 티 안내고 잘 다니냐, 쟤는 교회를 다녀도 전혀 티가 안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뭐가 그렇게 유별나게 티를 내냐

걔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저한테 충격이 와닿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고 , 하나님믿는 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냄세가 전혀 안났다는 거죠. 전혀 안난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 그 선배의 입장에서는

왜냐면 믿기는 믿는데 전혀 티가 안나니까,

그게 충격이라고요, 그게 충격.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서 어쩔수 없이 뭔가 다른냄세가 나야 정상인데, 전혀 다른 냄세가 안났다.

심각해지는거죠. 심각해지는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친구가 굉장히 속으로만 부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렇게, 그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충격 그런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어쩌면은 죄의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죄는 자그마하지만 발전이 되자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그죠?

점점점점 발달하게, 발전하게 되있는데,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그것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아 이러면 안되겠다, 돌이켰던 기억이있는데

어쨌든 그 노아의 홍수때 그 사람들의 상태가 그러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국이 무어냐, 그 결국이 , 하나님의 심판이죠

6절, 7절,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니까 죄의 마지막은 결국 심판으로 마무리 될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니까 죄의 시작은 사소하고, 또 죄의 과정이 때로는, 죄짓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달콤함을 줄수 있어요, 달콤함

그 잠언에 나와있는대로,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속에는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모래처럼, 모래를 씹은 것처럼 될것이다라는 말씀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해요, 죄라는 것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아주 달콤하죠

그 c.s . Louis 의 글 가운데 판타지 소설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나니아 연대기 라는 건데, 여러분들도 보신분들 계실까 모르겠는데

그 나니아 연대기를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꺼란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영화로 만들어진 부분이 그 나니아 연대기 총 7편의 글가운데 2번째 편이 이제 해당되거든요, 마녀와 사자와 옷장,

거기에 보면은 그 마녀가 그 셋째 에드몬드라고 하는 아이에게 아주 맛있는 과자를 주잖아요, 처음만났을때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마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뭐 이렇게 따뜻하게 이쪽으로 오라그러고 따뜻한 그 뭐라그래요, 크림스프를 주던가, 주고 그리고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뭐 터키과자를 먹고싶다그러니까, 맛있는 터키과자를 딱 , 마법으로 딱 주잖아요

그게 너무 친절하고 너무 주는게 맛있는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요, 한번 먹으면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과자예요, 그게 사실은
죄라는 것이.

근데 한번 거기에 딱 맛을 들이면은 절대 빠져 나올수 없는 , 그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이 에드몬드라는 아이가 자기 형제들을 배신하고 마녀에게

또 가는 이유는 사실은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게 아니예요

그 과자 먹고 싶어서 그러는거예요 과자. 그래서 마녀한테 가가지고 그러죠

저 과자 먹을 수 없나요? 죄라는 건 그런거예요 참 유혹이 달콤하죠

하지만 그결국에 마지막은 심판으로 마무리 된다는 거예요 ,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러나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심판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 자 여기 잡으시고, 에스겔 33장 , 에스겔 33장 11절

33장 11절 다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ᄒᆞ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니까 하나님은 비록 사람들이 죄가운데 거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기뻐하지 않고 그 악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그들이 온통 생각하는것,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또 죄가운데 가득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가운데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죠

노아의 방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자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델이 되는거죠

14절 ,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4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15.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삼백 규빗, 광이 오십 규빗, 고가 삼십 규빗이며

하나님께서, 자 노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 심판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 심판의 계획으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 네모난 배

자 방주의 특징을 이야기 하라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는 이걸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될텐데

일반배하고 방주는 다른게 있죠, 다른게 뭐냐, 차이점을 얘기하라 그러면

방주에는 첫째 방향을 조절할수 있는 키가 없다는 거예요, 키가 없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방향을 정하시기 때문에 , 그죠

그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는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첫째는 키가 없어요 , 방향을 조절하는

2번째는 , 노가 없어요 또. 요즘 말로 하면은 모터가 없는거죠

앞으로 가거나 뒤로가거나 옆으로 갈수가 없어요, 방향도 조정할수 없고, 어디로 향해 나아갈수 조차 없는거예요 .

그니까 100프로, 방주에 탄다는 것은 100프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

정말 100프로 의지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정하거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모든 방향과 움직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거, 그게 구원이죠.

방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속성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구원을 받을수 있는 길을 알려주죠

거기에서 이제 반응이 필요하잖아요, 반응이 필요하죠

노아는 거기에 아주 올바른 반응을 보였죠

자 6장 22절 ,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응답, 노아의 반응이라는 것은 굉장히 합당하죠 ,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인거예요

어떤 반응? 순종이라는 반응, 순종

우리가 하나님앞에 보여야 할 받응은 어떤 평가나 또는 어떤 비판이나 뭐 그

런것이 아니고 왜그럴까 하는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앞에 우리가 보여야될 적절한 반응은 순종이죠 , 순종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대로 ,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거죠 믿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 히브리서 11장 7절 , 히브리서 11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다.

한번도 심판에 대해서 경험에 보지 못한거예요, 어떤 심판, 특히 물에대해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믿고 의지한 것은 , 믿은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물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하는 그 내용을 믿은게 아니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는 표현처럼 사실은 그 말을 하는 하나님자신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 하나님의 하신 말, 그 말에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고, 믿을수밖에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할때, 그

믿음의 내용은 사실, 믿음이라는 그것은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나 또는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내용이 아닐수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것 입을것 마실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는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보일때가 많아요 사실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가장 많이 될 때가 그 시험기간에 집회가 딱 가질때

그때 제일 고민이되거든요

물론 공부는 이제 평상시에 열심히 해야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평상시에 공부하는 대학생이 어딨어요 많지 않죠

대부분 시험기간 앞두고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그 시험공부를 열심히 해야될 때 교회 대집회가 있다, 고민이 무지하게 되죠

그럴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그말이 과연 유효화 되는 거예요

또 그말 믿고 와가지고 집회 참석하고 공부 전혀 안했어, 근데도 하나님이 공부 잘하게 해줄거라는 믿음가지고 가서 시험 공부 잘하게 되냐 이거예요

자 이런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논리적으로 그게 이해가 안되거든요, 논리적으로

공부는 열심히 해야지 시험 잘보는거지, 공부 열심히 안했는데 잘볼일 없거든요

근데 마치 그 말씀은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은 그냥 이게 인과관계 없이 시험도 잘볼수 있다 이런 말처럼 들린다 이거예요

믿음은, 믿음은 참 때로는 애매모호 할때가 많아요

우리생각으로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라는 말자체가 우리에게 원래가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예요

믿음은 이해를 요구하는게 아니고 전적인 신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신뢰의 대상은 그 말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시는 대상에게 있는거죠, 그니까 하나님께 있는거예요 하나님께

그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순종을 낳는거지, 그 말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와같이 순종할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이 있었다.

올바른 반응을 제대로 보인거죠.

거기에 반해서 노아는 이제 또하나의 임무를 맡은것이 있죠, 바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이죠

자 베드로 전서, (정정) 베드로 후서 , 베드로 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라고 하는 것은 신명이 6장 25절에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하심을 듣고 자 노아가 자신만 살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죠 , 자기 가족만 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한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무관심 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몰라서 못받는 게 아니죠 사실은 .

어쩌면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의 반응이 아닌 무관심이나 또는 반대, 이렇게 대적하는 .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38절,3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7.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39.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냥 오직 그냥 육신것만 그냥 추구하는 , 그것이 곧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자 그 무관심이냐, 관심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노아와 그의 7식구는 구원을 받고 나머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그 죽음, 그 이면에는 사실은 그들의 실질적인 죄에 대한 내용이 그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불순종, 믿음없는 그것이 그들의 심판을 결정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거죠

어쨌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노아는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은 불완전하게 아니고, 불안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안전하고 확고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심판을,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구원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 주셨죠

창세기 9장 ,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 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13.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너희에 대한 그 구원, 그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않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바로 이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훗날 베풀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실 바로 그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고 또 완전하다는 걸 보여주신거예요

왜냐면 노아홍수 이래로 지금까지 전세계를 덮는 홍수는한번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에, 그 예수님에 대한 고난과 예수님에 대한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 바로 그 다음에 바로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 구원이 완전하다는 걸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좀 지나가지 않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54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지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이사야 54장 9절10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10.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찌라도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이 노아의 홍수의 사실성,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발생했고, 그가운데서 노아와그의 가족이 구원받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한가지 약속 분명히 약속을 했죠

그리고 그 약속은 수천년간 지켜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과 확실성을 보증으로 해가지고 너희를 향한 구원, 바로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줄 바로 그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성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 먼저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될텐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삶에 적용해볼 교훈들을 직접 이끌어 보자면 어떤게 있을까

먼저 첫째는 아까 죄의 시작이라는 것은 구별됨의 사라짐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구별됨의 사라짐.

그니까 평범하게 바뀌어버리는거.

정상적으로 바뀌어 버리는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답지 않게 세상사람들과 같은 모습, 같은 생각, 같은 그 속에 들어가 버릴때, 죄는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풍속, 세상의 유행에 쉽게 , 휩싸여 버리면 안되겠죠

죄의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것처럼 죄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 아주 작은 것

우리가 이것쯤이야 그걸 하면 안되요 우리가 이것쯤이야 그걸 하면 안됩니다

그걸 하나 두 개 하다보면 죄의 유혹은 달콤하기 때문에 그 다음 부터는 거부할수 없어요

거부할수 있는 힘이 없는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것은, 개구리의 교만입니다. 개구리의 교만

여러분 개구리의 교만 얘기 다 아시죠

개구리가 그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폴짝하고 뛰어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차가운 물에 넣어가지고 서서히 대피면 어떻게 되요? 대피면 폭삶아지죠

근데 그것이 개구리가 못느끼기 때문에 폭 삶아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요.

개구리는 그것을 알아요 알아.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잖아요

바깥 환경에 맞춰서 온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니까 차가운물에 있을 때는 적응해요

적응해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갈때마다 자기가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점점 적응을 해가는 거예요 몸의 온도를 변화시키니까.

적응 하다가 어느정도 수준이 되면 적응할수 없는 정도가 되요.

그럼 뛰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뛰쳐 나가야 될 바로 그 지점이 되면 문제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중간에 그 변화시키는데 그 힘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뛰쳐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니까 폭 삶에 지는 거예요 폭 삶아 지는 거

개구리의 교만이예요

중간에 이것 쯤이야, 이것쯤이야, 이정도는 뭐 할수 있지 라고 계속 적응하다 보니까 결국엔 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정도는 내가 이겨낼수 있지 , 이정도, 이정도 쯤이야 하다보면은 거기에 점점 물들어가고 거기에 반하는데(?) 힘 너무 많이 드는거예요

그러다가 어느틈에 내가 이제 떠나고 싶어라고 생각할때는 이미 떠날 힘이 없는거예요
떠날 힘이 없는 거예요

죄라는건 그런거예요, 작은거에서부터, 작은거에서부터

그럼 그 죄를 작은것에서부터 차단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죄라는 것이 시작될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가 아닌 선한 것을 쌓으면은 선한것이 나올수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그릇에다가 무엇을 쌓을 것이냐

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으면 말씀이 나오고 말씀안에 행함이 나오겠죠

그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질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마음

속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 속에 나올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립은 없어요

말씀도 안읽고 기도도 안하면서 죄를 안질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인데 죄를 짓는다, 이것도 불가능 한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삶속에서 우리가 죄의 시작은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겠죠 점점

그죠? 말씀을 쌓아가야 되요

그리고 구원의 , 노아의 방주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반댓말은 율법이죠, 율법의 핵심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예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죠

우리의 본래의 속성이 그러거든요

우리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나도 한 대 뭐라고 해야되겠고, 한 대 때리면 한 대 나도 때려줘야 되고 그러죠 ?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도 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누가 나한테 눈을 흘겨, 그럼 어때요 여러분도? 눈을 흘겨 보고 싶죠

그게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인거. 그게 본성이죠 사실은

우리는, 이 요즘사람들은 뭐 법이 굉장히 싫고 자유를 추구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율법의 본성에서 벗어날수가 없어요, 받은대로 해주고 싶거든요 우리는

자 그럼 노아의 방주는 뭐냐, 받은 대로 준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들의 죄에 대한 댓가로써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은 대로 주는게 아니고 받은게 없는데 주는게, 받은게 없는데도 주는거 그게 은혜거든요

그니까 우리 , 우리는 은혜받은 자로써, 은혜받은 자로써 우리는 남들에게 율법적인 태도로 대해야 될것이냐 아니면은 은혜받은 자로써 은혜로운 모습으로 보일 것이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아봐야 되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하세요, 학교에서나 어떻게 , 직장에서나 , 어떻게 대해요

누가 나한테 잘해줄때만 잘해주고 뭐 사주면 같이 사주고 또 반대로 내가 먼저 사주면 기대하고

내가 뭔가를 행할 때 저쪽에서 좀 해줬으면했는데, 안해줘. 그럼 열받고

이게 율법적인 태도 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정말 은혜로써 사람들에게 준대로 , 또는 받은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으로. 베푸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라는 말씀처럼

그리고 그 은혜가 사람들을 나중에 진심으로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먼저 대야 될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어진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그 은혜의 삶을 가르쳐야 되겠죠

어제 ,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아들이 어디가서 맡고 오니까 가서 한바탕 해버리라고 총을 줬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그게 이제 율법적인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먼저 은혜받은 자로서의 은혜의 사람이 되야 될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은혜베푸는 자, 로서의 삶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죄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더 가까워 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